

아세안(ASEAN)과 한국의 문화협력 활성화 모색을 위한 소고*

김민정**

- I. 들어가는 말
- II. 아세안(ASEAN)과 아세안 방식 (ASEAN Way)
- III. 아세안의 문화협력 및 교류사업
- IV. 한-아세안 문화협력 및 교류사업
- V. 맺는 말

이 글은 최근 긴밀해지고 있는 한국과 동남아의 관계를 이해하고 향후 문화교류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아세안 내부 문화협력과 한아세안 문화교류 상황을 분석한다.

1989년 공식적으로 시작된 한아세안 관계는 1997년 아세안+3체제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되고, 2003년부터는 문화예술분야와 문화산업부문의 사업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이러한 변화추세는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협력에서도 문화외교가 중요해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국의 대아세안 문화교류는 '문화교류 기반 확대' 보다는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외교'에 치중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문화외교의 방향은 새로운 대안 가치를 담도록 재조정되어야 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문화교류 방식을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지도 상호 이해의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동남아, 아세안(ASEAN), 아세안방식(ASEAN Way), 문화협력, 문화교류, 문화외교

* 이 글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의 「국제기구를 통한 문화협력사업 활성화 방안」에 기고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전임강사.

I. 들어가는 말

1997년 이후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개국에 한중일 3국이 더해진 아세안+3 모임이 정례화되면서, 아시아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동북아 중심에서 동남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른 지역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 부상하는 새로운 움직임의 동력은 경제 협력과 지역안보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아시아 지역 내의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세안에 대한 국내 연구는 2000년도 이후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 외교, 안보, 경제에 치우쳐있다.¹⁾ 국제기구를 통해 지역 협력을 모색하는 국가의 동기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연구의 편향성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아세안+3 발족 이후 동남아 지역과의 교류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Thomas 2002: 8), 2004년에는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에 동의한 것을 고려한다면, 아세안 연구의 영역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정치경제 위주의 연구 동향 속에서도 동남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촉구하는 연구도 나와 있지만(신윤환 2004; 배금찬 2003), 여전히 정치경제적 이해 관계에 일차적 관심을 둔 것이다. 즉 현재까지 한국에서 아세안의 사회문화 협력 활동에 대한 관심은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한국의 대 아세안 정책의 사회문화 분야는 지극히 추상적이거나

1) 국회도서관에서 “아세안”을 주제로 국내학술지 검색을 한 결과는 2000년도의 4건에서, 2001년도 9건, 2002년도 12건, 2003년도 13건, 2004년도 18건, 2005년도 1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정치, 외교, 안보, 경제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동남아시아 ‘세계문화유산’ 디지털화의 현황과 전망” (이남희, 인문콘텐츠 5 : 113-135, 2005) 과 “아세안여성회의 보고서”(추애주, 여성 427: 20-23, 2004) 단 두 건뿐이다.

정치경제적 이익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진정한 문화협력과 사회교류의 의의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는 유래 없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할 상황에 직면해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노동이주, 결혼이주, 여행, 유학, 사업, 선교, 등을 매개로 한 다양한 아시아 민족과의 접촉과 교류이다. 또한 세계화에 동반하는 지역화의 현상으로 한국과 아시아 각국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정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의 지방축제에서 아시아 문화예술단체의 초청공연이나 행사는 거의 빠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오늘날 한국사회는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기구의 문화교류 활동을 파악하고 비정부단체나 민간부분을 포괄하는 문화협력과 사회교류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한다(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177, 336).

이 글은 현실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아세안 연구에 일조하기 위한 것으로, 아세안 문화협력 상황에 대한 일차 분석과 한-아세안 문화교류에 대한 정책적 제언의 성격을 띤다. 아세안의 문화협력 활동내용 분석은 공식문건 및 언론보도내용에 의존하며, 일본이나 한국의 대 아세안 문화협력 활동내용 역시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공식문건에 의존한다. 결과적으로 이 글은 정책이 구현되는 실제상황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질적 방법을 사용한 후속 연구에 의해 극복되길 기대하며, 여기서는 새로운 연구주제 영역을 제안한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아세안과 아세안+3의 역사를 정리하고, 아세안의 변천과정 속에서 문화협력 활동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대 아세안 문화협력 및 교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한국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아세안과의 문화협력을 진행

해온 일본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정책적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아세안 내부의 문화협력 사업 내용이 한-아세안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다뤄지게 되는데, 이는 한-아세안 사업의 역사가 짧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세안의 문화협력 사업 내용이 향후 한-아세안 사업에 중요한 참고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II. 아세안(ASEAN)과 아세안 방식(ASEAN Way)

1. 아세안과 아세안+3

아세안(ASEAN)은 1967년 8월 8일 방콕에서 동남아 5개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가 구성한 기구이다. 이어 1984년에 브루나이, 1995년에 베트남, 1997년에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에 캄보디아가 가입하여 현재의 10개국이 되었다. 동남아 지역주의의 일차적 기반은 독립 이후 외부세력에 대해 느끼는 위협과 불안감이다. 동남아 국가만으로 조직된 토착조직의 역사는 1958년 말레이시아가 반공산주의 안보조직으로서 ASA(Association of Southeast Asia)를 주창한 것에서 시작된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구성된 ASA는 서구에 연대하는 조직으로 비취졌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자신이 참여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직을 원하였다. 이에 아세안은 1967년 8월 8일 방콕에서 ASA에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더해진 동남아 5개국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각국이 직면한 안보의 위협은 외부의 개입으로 야기되는 지역 내 공산주의 반란이었고, 아세안은 이에 대해 세 가지 방식의 해답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통해 내부 공산주의 촉발 요소를 감소시키고, 둘째는 외부의 군사적 영향력을 줄이고, 셋째는 아세안의 내부 경쟁을 축소하고 성원 국가간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Narine 2002, 9-11).

하지만 표면상으로 볼 때 아세안은 안보 지향적 조직이 아니다. 초기에 반공 국가들로 조직된 아세안에서 안보는 중요한 문제였지만, 지역 내 다른 국가와 대결 구도가 구축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안보 불력을 천명하지 않았다. 게다가 안보문제에 대해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국가 간에는 여전히 불신의 문제가 남아있고, 신뢰에 기반한 블록을 구축하기에는 각 국가의 군사력도 미비하였다. 한편 동남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1975년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공산정권이 부상하면서 아세안은 경제발전을 통한 반공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976년 2월의 발리회담은 아세안 국가정상이 처음으로 모인 자리였다. 여기서는 “아세안 협력선언(ASEAN Concord)”과 TAC(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를 채택하는데, 전자는 안보의 경제적 측면을 선언한 것으로서 이후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가 만들어졌다. 후자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국가간 비침략 협정을 위한 것이다(Narine 2002, 12-15).

발리회담 이후 아세안은 경제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경제자유화 정책을 실시하나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 냉전 시기 아세안 경제는 눈에 띄게 발전하지만 이는 외부상황으로 인한 개별국가의 성취였고²⁾ 아세안 조직과는 관련이 없었다. 국가간 경제협력이 성공한 것은 일본의 합성고무 생산 증가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1973년 아세안-일본 합성고무 포럼을 만든 것이다. 이 고무 포럼은 1977

2) 냉전 시기 아세안의 경제 성공은 지라정치적 요인과 지역안보의 맥락으로 설명된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보았고, 베트남전은 태국과 싱가포르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년 아세안-일본 포럼으로 바뀌었고, 일본이 아세안을 집단으로 인식하고 접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냉전 이후 경제협력을 통한 이득은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1992년에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1993년에는 “아세안 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창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가입하기 시작하였고, 1995년에는 “동남아 비핵지대화 지역(SEANWFZ: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을 체결하였다. 냉전 시기 이후 경제 조직으로서 아세안은 지역 내 정치적 안정을 꾀하는 방식으로 외부 투자자들에게 지역 전체를 매력적으로 만든 측면이 있다(Narine 2002: 23-24).

한편 아세안+3는 처음에 1994년 가동되기 시작한 ASEM(Asia-Europe Meeting)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닥치자 아세안+3는 즉시 지역 재정 문제에 대해 언급하게 되었다. 1997년에 창설 30주년을 맞은 아세안은 한국과 중국, 일본을 초청하였고, 1998년에는 이러한 아세안+3 모임이 정례화 되었다. 1999년에는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을 채택하면서 아세안+3 체제가 구축되었다. 2000년의 아세안+3 미팅은 지역 내의 경제와 기술 교환, 새로운 지역위기 시 아시아의 단결, 공동의 시장과 통화 단일화라는 장기적 목적을 수립하였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세안+3로 대변되는 아시아의 단일성이 현실화되기에는 많은 장애가 놓여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직 일본은 국제 정치경제 체계 속에서 미국과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이며, 아시아 국가들 간의 긴장관계도 극복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일본이 구축하고자 하는(예를 들어 AMF[Asian Monetary Fund]를 통한) 아시아 경제모델은 뚜렷하지 않으며, 여기서 아세안의 역할에 대한 합의 역시 명확하지 않다. 아세안이 아시아 재정 기구를 만드

는데 초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아시아 주요 세력들 속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만일 아시아 재정기구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국가간 차이가 해소된다면, 지역 내 매개자로서 아세안의 정치적 역할은 감소할 것이다(Narine 2002, 7장; 변창구 2004).

이에 아세안+3 국가들 사이에는 조직을 확대하는 방식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미국을 견제하는 중국과 말레이시아는(그리고 이들 국가에 동조하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는) 현재의 아세안+3 체제의 유지를 원하는 반면, 미국의 동맹국인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참가국의 확대를 주장한다. 일본은 기능별 협력 상대로서 인도나 호주, 뉴질랜드의 영입을 희망하나 한국은 이를 반대하였다. 이와 같이 아시아 지역 협력체의 경계 확장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2005년 12월에 개최될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는 아세안+3에 인도가 추가된 아세안+4로 확정된 상황이다(문화일보/ 2005/ 4/ 12).

2. 아세안 방식(ASEAN Way)

아세안이 지향하는 지역주의 및 공동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Narine 2002: 1). 하나는 동남아 국가들로 구성된 지역공동체로서 자체의 규범과 가치, 실행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외부의 정치경제적 구조 속에서 개별 국가들이 적응하기 위한 도구라는 견해이다. 동남아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들은 전자를 구성주의적 입장(constructivist)으로, 후자를 신현실주의 입장(neorealists)으로 이름붙이며, 아세안은 이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Acharya 2001; Narine 2002; Haacke

2003; Ganesan 2004; 신윤희 2004). 지역공동체로서 아세안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소위 “아세안 방식(ASEAN Way)”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의사결정원칙이다.

아세안 방식은 말레이 전통 마을 사회에서 중시하는 협의와 합의의 가치인 ‘무샤와라(musyawarah)’와 ‘무푸캣(mufakat)’에 기반한다. 무샤와라는 “지도자란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거나 자의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공동체가 따라야 할 길을 부드럽게 제시하는 사람이므로, 결론을 내기 전에 항상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협의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감성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무푸캣은 무샤와라가 지향하는 목표인 합의를 의미한다. 무샤와라의 정신 속에서 협상은 반대파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나 형제들과 행하는 것이다(Narine 2002: 31).

이러한 아세안 방식의 외교에서는 특정 분야의 갈등이 다른 안정적인 외교 분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문제를 분할하고 어려운 문제는 지연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결과적으로 성원들의 합의하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이를 차후로 밀어둠으로써 다른 영역에서의 진전은 방해받지 않는다. 아세안 방식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지역 단위의 사회화를 도모하고, 정부나 사회 엘리트들 간의 접촉을 독려한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 지도자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의무감과 친밀성을 통한 연대감 형성이나, 지역 정체성 구축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말레이 전통 마을의 가치가 국제체제로 옮겨질 때 나타나는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첫째, 국제 수준에서 문제가 되는 이해관계의 성격과 복잡성은 마을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합의를 지향하는 것만으로 이해관계가 수렴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둘째, 마을 지도자의 권위는 국제적 수준에 적용될 수 없으며 아세안의 맥락에서는 어느 국가도 지도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협의와 합의의 과정은 동남아 특유의 가치라고 하기 힘들다.

그러나 아세안의 방식이 외교적 행동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방식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아시아적 방식으로 설명되며, 이때 '아시아적'이라는 것은 갈등을 비대결적 방식으로 다루는 문화 지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적 선호는 아세안 방식에서 가장 완전히 구현되고 있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Narine 2002, 32-33; 변창구 2005, 413-417).

동남아의 현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아세안 방식은 아세안의 내부문제를 다루는 현실적이고 적절한 방식이다. 성원들에게는 가장 낮은 수준의 공통점에 호소하면서 조직이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을 가하지 않으며, 다른 활동의 협력을 방해하는 특정 영역에서의 불합의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국제관계에서는 상당히 생산적인 접근방식이며 아세안의 진정한 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아세안 방식이 아세안의 제도적 약점이다. 공동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아세안의 약점은 특히 냉전 이후의 시기에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Narine 2002, 33). 아시아 경제위기를 위시하여 동티모르 사태와 같은 지역문제 등은 아세안 국가내의 문제가 지역 전체에 상당한 반향을 가져올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알려준다. 즉 외부 투자자에게 동남아는 하나의 지역 블록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적 환경의 변화는 과거와 달리 아세안이 하나의 블록으로서의 주권 행사를 하도록 요청한다. 이런 점은 아세안+3와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에서 차지하는 동남아의 위상에서도 확인된다.

요약하면, 아세안은 지역 내 안보 공동체로 시작되었지만, 1970년대 말 경제협력체제로 전환을 시도하였고,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에는 한중일 삼국이 포함된 아세안+3 체제가 시작되면서 관계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아세안 방식은 아세안이 채택하고 있는 독특한

국제관계의 모델로 단독지배체제를 반대하고 문제를 분할하여 해결하며 합의에 의한 결정과 느슨한 연대감을 지향한다. 한국의 대아세안 교류 및 협력도 이러한 아세아 방식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아세안의 조직 및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문화협력과 교류사업의 내용을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아세안의 문화협력 및 교류사업

1. 아세안과 문화정보위원회(COCI)의 조직 및 운영

1967년 출범 당시 아세안 조직은 (외무)장관회의(AMM: ASEAN Ministerial Meeting)와 상임위원회(ASC: ASEAN Standing Committee),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미팅만을 갖춘 상당히 느슨한 구조였다. 그러나 1976년 발리 회담 이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체계가 정비된다 (Narine 2002: 16-17): ① 정상회담(ASEAN Summit)은 정례화되어 있지 않으며 드물게 개최된다 ② (외무)장관회의(AMM)와 함께 경제장관회의(AEM: ASEAN Economic Ministers)가 중요해진다 ③ 상임위원회(ASC)는 국가별 사무국 관계를 담당한다 ④ 고위관리회의(SOM: ASEAN Senior Officials Meeting)가 정례화된다 ⑤ 아세안 사무국(Secretariat)이 창설되었으나 기능은 제한적이다 ⑥ 다양한 기능의 위원회 체제가 갖추어진다.

아세안의 주요 직위는 회원국가 이름의 알파벳 순서대로 돌아가며 맡는다. 최고 의결 기구로 매년 개최되는 정상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직 역시 회원국가 이름의 알파벳 순서에 의거하여 맡게 된다.³⁾

사무국의 사무총장 역시 회원국가 이름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국가가 자국의 장관급 중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다. 사무국내의 기타 전문직 인력은 지역 전체의 경쟁을 통해 공개 채용된다. 사무총장이 이끄는 사무국은 아세안의 활동을 주도하고 조언하고 조정하며 실행한다. 아세안 회원국은 사무국의 운영비를 매년 똑같이 배분하여 지출한다. 아세안은 아세안 국가의 수도에 기반을 둔 몇몇 센터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또한 아세안 대화 파트너(Dialogue Partners) 국가 수도에 기반을 둔 아세안 회원국 대사들로 구성된 아세안 3세계위원회(ASEAN Committees in Third Countries)로부터도 지원을 받는다.⁴⁾

아세안의 사회문화 교류 및 협력 사업은 발리회담을 통해 아세안이 재조직된 이후에 시작된다. 1978년 문화정보위원회(COCI: Committee on Culture and Information)의 발족을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데 이 기구는 지역발전 속에서 아세안 성원간의 상호 이해와 연대추구를 목표로 한다. COCI와 관련된 조직으로는 정보담당장관회의(AMRI: ASEAN Ministers Responsible for Information), 정보담당고위관리회의(SOMI: ASEAN Senior Officials Meeting on Information), 각국의 문화정보위원회(ASEAN National COCI)가 있다. 또한 비교적 최근인 2003년에는 문화예술장관회의(AMCA: ASEAN Ministers of Culture and Arts)가 신설되었다.

아세안의 문화정보위원회(COCI)의 재정은 일차적으로 1978년에 수립된 아세안 문화기금(ACF: ASEAN Cultural Fund)으로 충당되며, 일부 프로젝트는 아세안 대화파트너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ACF는

3) 이하 아세안과 아세안 문화정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관련 내용은 아세안 홈페이지(www.aseanorg.com)를 참조하였다.

4) 아세안의 대화 파트너 국가는 모두 11개국으로, 호주,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EU),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러시아연합, 미국,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이다.

타케오 푸쿠다 전 일본수상이 50억 엔(2천5백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 기금의 이자가 COCI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된다(ASEAN, 1987: 141-142). ACF의 자문기구인 각 아세안 국가에서 외환을 담당하는 관료로 구성되며 아세안 사무국에게 ACF 운영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ACF는 전문 투자자들에 의해 관리되며, 매년 2백만 달러의 수입을 내고 있다. ACF의 사용은 상임위(ASC)의 감독 하에 아세안 사무국이 갖는다.

즉 아세안의 조직 체제는 1976년 발리회담 이후 실질적으로 갖추어졌으며, 문화협력 사업은 그 이후 문화정보위원회(COCI)가 설립되고 일본이 재정을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 아세안과 문화정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지도부를 돌아가면서 담당하는 원칙에 의거하며, 아세안 방식의 상호견제와 느슨한 연대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2. 아세안의 문화협력 프로그램과 사업

설립 초기부터 아세안은 경제와 안보를 위한 협력을 넘어서는 지역기구로서, 지역내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사회문화의 교류를 통한 지역 공동체의 건설을 추구하였다. 이에 문화정보위원회(COCI)가 수행하는 아세안의 사회교류에는 인구, 노동, 교육, 청소년, 여성, 건강, 인적자원,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발전 계획과 교류협력 계획이 포함된다. 한편 문화와 정보 교류에는 공연 예술, 문학과 아세안 연구, 라디오 및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출판 및 개인미디어 분야에서의 발전 및 교류 내용이 포함된다. 여기서는 문화와 정보 교류 분야의 활동에 국한하여 세 시기로 나누어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문화정보위원회 설립 이후부터 아세안 20주년인 1987년 또는 정보담당장관회의(AMRI: ASEAN Ministers

Responsible for Information) 개설 이전까지의 시기이고, 둘째는 1989년 제1차 정보담당장관회의(AMRI) 회의가 시작되고 “아세안 비전 2020”이 채택되는 시기이며, 마지막은 2003년 “아시아 협력선언 II”가 나오면서 “아세안 비전 2020”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1) 문화정보위원회(COCI)의 시작과 활동영역 수립 (1978-1987)

출범 20주년 또는 AMRI 개설 이전까지 아세안 문화교류의 활동과 협력내용은 “공연예술”과 “문학과 아세안 연구”, “라디오 및 텔레비전”, “출판 및 언론, 개인 미디어”라는 네 가지 하위 분야로 나뉘어 시행되었다(표 1 참조) (ASEAN 1987, 141-157). 이 시기는 아세안 문화정보위원회의 기본활동 틀이 마련되는 시점이며, 공연예술 분야와 문학 및 아세안 연구 분야의 사업이 매스미디어 및 출판 분야의 사업보다 더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공연예술 분야의 사업은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아도 실행 가능하며 전시적 성격이 강하고 예산은 상대적으로 덜 드는 특성을 가지기에 초기의 문화협력 사업으로 적합한 측면이 있다. 문학과 아세안 연구는 아세안의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기초사업으로서 아세안을 위해 문화정보위원회의 존재가 필요함을 정당화하는 성격을 갖는다. COCI 출범 5년이 지나면 서부터는 예산이 다소 많이 사용되고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사업들이 시행되기 시작한다. 고고학 발굴 및 박물관 인력 훈련이나 아세안 관련 영상자료 제작이나 방송인 훈련 프로그램이 그 예이다.

〈표 1〉 초기 (1978-1987) COCI의 주요 사업내용

하위분야	사업 내용	비고
공연예술	아세안 전시여행	회화, 사진, 아동미술 분야
	아세안 공연예술 페스티벌	
	청소년 미술 워크숍과 전시	
	광장 조각 심포지엄	
	아세안 청소년 음악 워크숍	
	아세안 연극 페스티벌	1988년부터 시작
문화와 아세안 연구	아세안 문학 선집 시리즈	
	아세안 문화에 대한 아동 교육자료 프로젝트	그림책, 차트, 포스터, 문화지도, 기타 교육 자료
	아세안 고고학 발굴 및 보존 프로젝트	1983년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디엔에서 시작
	박물관 민족학 큐레이터 교환 프로그램	1983년 시작, 아세인 박물관 편람 제작 포함
라디오 및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아세안 라디오 문화프로그램 교환	전통가요 및 현대 가요 교환 방송
	아세안 텔레비전 문화 프로그램 교환	아세안 문화 필름 제작 및 방영
	아세안 방송인 훈련 프로그램	1983년 시작
	아세안 영화제	15년간 성황리에 지속됨
	아세안 관련 영상자료 제작	“아세안의 형성”(1983년, 말), “아세안의 사회문화적 측면”(1985년, 필), “아세안의 경제산업구조”(1985년, 싱)
출판 및 개인간 미디어	아세안 뉴스 에이전시 언론인 훈련	
	아세안 편집인 회의	ANEX(ASEAN News Exchange) 운영 및 감시 활동 포함

* 출처: ASEAN (1987) 및 ASEAN COCI 해당연도 협약내용에서 구성

2) 정보담당장관회의(AMRI)의 시작과 대중매체 교류협력의 강화 (1988-2002)

1989년 5월에 제1차 AMRI가 개최되면서 문화협력 분야의 활동

은 가속화된다. 1차 회의에서 제시되었던 사업은 이후 2년마다 열리는 AMRI 회의 속에서 구체화되며 COCI의 주요활동 내용을 구성한다. 이시기에는 <표 1>의 네 가지 하위분야 중 “공연예술”과 “문화와 아세안 연구”는 그대로 유지되며, “라디오 및 텔레비전”과 “출판 및 언론, 개인 미디어”의 사업 내용은 확대 심화된다(<표 2> 참조).

<표 2> 1988년 AMRI 개설시 COCI의 매스 미디어 관련 사업내용

하위분야	사업	내용 및 추진상황
라디오 및 텔레비전	텔레비전 제작진 육성	아세안 각국의 텔레비전 제작진 육성 사업 추진
	프로그램 교환 및 훈련과 워크숍	말레이시아의 AIBD (Asian Institute for Broadcasting Development)를 이용하여 텔레비전 방송 인력 교환 및 훈련/ 텔레비전 방송관련 워크숍 개최/ 아세안내 텔레비전 협력을 강화
	아세안 교환 프로그램	일상과 문화 뉴스를 다루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교환 추진
	아세안에 대한 라디오 프로그램	국영 라디오 방송국 협조로 아세안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협의
	아세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세안의 음악과 작곡가를 연주하는 아세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일명 “All ASEAN Radio and Television Orchestra”) 재건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위한 아세안가(歌)	인도네시아가 헌납한 아세안가(歌), “아세안의 화합(ASEAN Harmony)”을 각국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방영
출판 및 언론, 개인 미디어	아세안뉴스에이전시 (ANEX) 네트워크 간 협력	ANEX 역량 강화/ 부가적 재정지원/ 낮은 수준의 아세안 내부 통신관세 부가 논의
	외부 언론과의 관계	아세안과 외부 언론 간에 상호 도움이 되는 관계 형성/ 아세안 관련보도가 균형을 갖추고 객관적일 수 있는 방안 모색/ 외부 언론이 아세안의 가치와 감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정보와 출판 분야의 향후 협력	아세안 출판체계의 역사와 발전 연구/ 지역 언론인의 아세안 의식 고양 훈련/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출판의 역할에 대한 연구센터 수립 고려
	아세안 언론인 상 제정	아세안의 이상을 구현하고 경제성장과 사회정의를 추구하고 인적자원 개발에 공헌이 있는 언론인에게 매년 시상

* 출처: ASEAN AMRI 1차 협약내용에서 구성

출판과 언론, 대중매체를 통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정체성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방향은 1997년 “아시아 비전 2020”을 위한 하노이 행동계획 I 전후에 고조된다. 이에 1996년의 제4차 그리고 1998년의 제5차 AMRI 회의에서는 아세안 전체의 대외 이미지를 쇄신하고 아세안 위성 방송국 운영을 모색하며, 아세안을 하나의 공동체로 그려내는 사진전 등이 개최된다. 또한 새로운 통신과 정보 원으로서 인터넷에 대한 관심도 대두된다(〈표 3〉 참조).

〈표 3〉 1996년 제4차 AMRI 이후 COCI의 새로운 사업내용

사업	내 용
인터넷 포럼	• 1996년 제4차 AMRI 이후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 당시 합의사항은 - 인터넷의 통신수단과 정보원으로서의 가치 인정 - 사업과 정보 및 문화교류의 장인 인터넷 사용에 대한 규제 법률 필요 - 인터넷의 경제 횡단적 속성 인식 - 아세안의 전통과 가치에 반하는 사이트 접속 차단 필요
아세안 위성방송	• 1996년 제4차 AMRI에서 논의 시작 • 1998년 제5차 회의에서는 2000년까지 현실화를 결의 (싱가포르 인터내셔널 미디어[SIM: Singapore International Media]를 네트워크 코디네이터로 하고 채널사용 시간과 프로그램 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 2000년 제6차 회의에서는 재정을 이유로 채널 설립을 유보 (대신 기존 텔레비전 프로그램 교환 강화, 아세안 뉴스와 방송시간 추가)
COCI 웹사이트	• 1998년 제5차 AMRI에서 논의 시작, 이후 회의에서 내용 보강
아세안 이미지 제고	• 2000년 제6차 AMRI에서 결의 • 2002년 제7차 AMRI에서는 아세안 의식과 이해를 위한 국가별 계획 수립: 자유무역지대로서 아세안의 경제통합, 테러에 대한 아세안의 입장,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부각하는 대외 홍보
아세안 사진전	• 아세안 비전 2020의 목표 달성을 위해 2000년부터 시작 - “동남아 국가의 협력”, “역동적 발전 속의 파트너십”, “돌보는 사회 공동체”, “외부를 향한 아세안”라는 네 주제로 공모

• 출처: ASEAN AMRI 해당연도 협약내용에서 구성

3) 아세안 행동계획 II와 AMCA의 신설 이후 (2003-)

2003년에는 “아세안 비전 2020”을 위해 2020년까지 3개의 아세안 공동체, 즉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아세안 경제공동체, 아시안 사회문화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목표가 설정되면서 사회문화교류가 확대되었다. 2003년에 신설된 문화예술 장관회의(AMCA: ASEAN Ministers of Culture and Arts)는 이러한 아세안의 공동체 설립방향과 밀접히 관련된다. 제1차 AMCA 회의에서는 학자, 문인, 예술가, 방송인등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아세안의 문화 다양성을 보존하며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이 논의되었다(〈표 4〉 참조). 한편, AMCA의 출범과 함께 한중일이 함께하는 AMCA+3도 시작되어 문화 분야에서 새로운 교류 범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표 4〉 2003년 제1차 AMCA의 사업과 내용

사업	내 용
중소규모 문화사업 및 기업 개발	시장 중심 경제에서 문화 산업을 육성할 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화 상품의 개발과 정교화를 모색
아세안 예술 페스티벌	AMCA시 아세안 예술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개최국과 아세안 지역 관광을 장려 (1차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환경 그림 대회	2003년 아세안 환경의 해를 맞이하여 캄보디아에서 개최: 중등부와 성인부로 나누어 진행, 1등 상금은 500 달러
아세안 자연유산 공원 선언	1984년에 선포된 자연유산 공원을 이후에 가입한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포함하여 새로이 선포: 생물학적 다양성과 환경 보존을 주요 기준으로 26 곳 지정

* 출처: ASEAN AMCA 제1차 회의 협약내용과 언론보도문 내용에서 재구성

한편 기존의 AMRI에서는 매스 미디어 등 정보 분야의 협력 및 교류 내용이 심화 확대된다. 주요 내용은 아세안 통합을 위한 미디어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분야에 대한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며 한중일과의 미디어 관련 논의가 정례화되었다(〈표 5〉 참조).

〈표 5〉 2004년 제8차 AMRI 회의의 사업과 내용

사업	내 용
아세안 통합을 위한 정보 및 미디어 역할 강화	• (아세안 위성방송의 무산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의 아세안 방송 강화: 매주 30분간 아세안 뉴스 방영 • “10개의 국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캐치프레이즈 채택 • 젊은 세대에서 아세안 의식과 이해를 고취
아세안 디지털 방송 협력	아세안 디지털 방송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테스트 포스 운영
아세안 텔레비전 뉴스 (ATN: ASEAN Television News) 강화	아세안 각국의 텔레비전 뉴스 교환을 기존 30분에서 40분으로 증가하고, 이를 위한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 증가
AMRI+3 (한·중·일) 시작 및 대외협력	• 아세안과 한중일 삼국 간 정보 및 미디어 관련 정책 논의·협조·협력을 위해 2006년부터 AMRI에 삼국을 초청 • 인도네시아 제안으로 2004년 12월 “정보와 미디어에 관한 아세안-중국 협력 촉구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출처: ASEAN AMRI 제8차 회의 협약내용과 언론보도문 내용에서 재구성

위에 기술한 아세안의 문화협력 사업의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978년 문화정보위원회(COCI)가 시작된 후 아세안 창설 20주년인 1980년대 말까지 10년간은 4대 하위분야와 세부 사업이 구축되는 제1기이다. 이 시기 아세안 공동체 의식형성이라는 문화협력 사업의 목표는 전시성 대화와 인적 및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추진되었다. 1989년 정보장관회의(AMRI)가 신설되면서부터는 매스미디어 영역의 활동과 사업이 심화 확대되는 제2기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냉전체제의 와해와 동남아 사회주의권 회원국의 영입, 아시아 지역 내 일부국가의 급속한 경제성장, 세계화의 진행과 통신서비스의 발전 등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즉,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매스 미디어의 중요성과 문화교류에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2003년 문화예술장관회의(AMCA)의 신설 이후는 제3기로, 이 시기 사업내용은 “아세안 비전 2020”을 위해 사회문화 교류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문화산업 분

아가 경제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는 아세안+3 체제의 시작과도 맞물리는데,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문화외교가 지역협력을 위해 점차 중요해지는 추세를 반영한다.

VI. 한-아세안 문화협력 및 교류사업

1. 한-아세안 관계와 협력사업

아세안은 2004년 현재 미국과 중국에 이은 한국의 제3위 해외투자지역으로,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상대이다. 그러나 한국과 아세안의 공식적인 교류 역사는 짧으며 관련 예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국은 1989년 아세안과 “부문별 대화관계(Sectorial Dialogue)”를 수립하였으며, 이는 1991년 “완전대화상대국 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으로 승격되었다. 이를 계기로 1992년부터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연간 200만 달러가 되었다. 1997년부터는 아세안+3 정상회의 시에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같은 해부터 한-아세안 협력기금 중 절반인 100만 달러는 한-아세안 “특별협력기금”으로, 나머지 100만 달러는 “미래지향적 협력사업 기금”으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금의 분리는 그동안 교역과 투자, 관광 등 경제 분야에 치중된 사업비를 사회문화교류 영역으로 전환할 필요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에는 청소년 교류, 언론인 교류, 문화인 교류가 포함된다. 이러한 대(對)아세안 사업규모는 일본 2,300만 달러의 10분의 1 수준이다(외교통상부 2004, 128).⁵⁾

5) 대 아세안기금의 규모는 일본 다음으로 유럽연합이 960만 달러, 미국이 700만 달러.

아세안과 부문별 대화관계를 수립한 1989년 이후 한국은 교역과 투자, 관광, 기술이전, 인적 자원 개발 등 모두 100여개의 사업을 시행하였고,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2,700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이후 대아세안 지원금액은 급증하여 2004년도에는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를 제외한 8개국에 대한 지원금액이 2,772만 달러로 책정되었다(외교통상부 2004, 103). 한편 2004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문”이 채택되면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관계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선언문은 아세안과 관계를 맺은 지 15주년 되는 해를 기념하여, 그동안 지속되어온 한국과 아세안간의 협력관계를 전분야로 확대하고 공고히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무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뿐 아니라, 상호 안보 및 외교 정책을 지지하며,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이나 신기술분야에서 협력하고, 세계화에 대한 적응을 돕고, 국제 환경에서 협력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협력을 심화한다는 내용이다.

한-아세안 교류가 시작된 이후 10년간 교류 내용은 관세와 관광, 공무원 교류에 한정되다가 200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학술활동의 교류가 시작된다(〈표 6〉 참조). 한편 2003년 이후 한-아세안 협력 사업은 급증할 뿐 아니라 2004년부터는 사업이 분야별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다. 〈표 7〉을 보면 2003년도 한-아세안 사업 건수는 전년도의 2배로 증가하는데, 사회문화 교류 및 협력 사업이 사업 건수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2003년도 사회문화 교류 및 협력 사업 주관단체는 국제기구에서 정부기관, 시민단체, 학술단체, 사립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사업내용도 학술, 보건, 예술, 청소년, 대학교육 등으로 다변화되었다. 한편 2004년도의 사업 건수나 내용은 전년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15

호주가 450만 달러, 캐나다가 240만 달러 순서이다.

주년 기념행사로 우표를 발간하고 한류스타가 동남아 순방을 한 것이 눈에 띈다. 문화예술인 교류는 총 2건에 그치지만 내용상으로는 보다 본격화된 느낌을 준다.

〈표 6〉 한-아세안 사회교류 및 문화협력 사업, 1999-2002년

연도 (전체 사업건수)	사회교류 및 문화협력 해당사업			
	건수	사업명	시행기관	내용
1990 (2건)	0			
1991 (1건)	0			
1992 (9건)	0			
1993 (8건)	0			
1994 (9건)	1	청소년 교류 및 협력	체육 청소년부	한-아세안 청소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청소년 캠프
1995 (9건)	1	아세안 도서관 종사자 학습 여행	국립중앙 도서관	아세안 도서관 종사자의 한국 도서관 견학
1996 (2건)	0			
1997 (6건)	0			
1998 (4건)	1	아세안 도서관 종사자 학습여행	국립중앙 도서관	아세안 도서관 종사자의 한국 도서관 견학
1999 (5건)	1	국제여행박람회 99	강원도 엑스포	아세안 홍보센터 부스 설치 운영
2000 (8건)	0			
2001 (7건)	2	한-아세안 학술교류	한국동남 아학회	한아세안 관제사 및 아세안 지역연구
		한국노인 홈케어 워크숍	한국노인 복지회	지역사회중심의 노인보건사업 워크숍
2002 (8건)	1	한-아세안 박사후과정 펠로우십	한국과학 재단	아세안 신진과학자에 대한 국내연구기관 연수

출처: 외교통상부 (2004, 118-123에서 재구성).

• 공무원 교류사업은 제외함.

〈표 7〉 한-아세안 사회교류 및 문화협력 사업, 2003-2004년

연도(전 체사업 건수)	사회교류 및 문화협력 해당사업*				
	건수	사업명	시행기관	내용	
2003 (16건)	6	아세안 문화리더십 교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아세안 문화예술인 상호교류 방문 및 세미나	
		아세안 노인 홈케어 1차년도	한국 노인복지회	한국형 노인 홈케어 사업연수를 통한 아세안 모델 개발지원	
		한-아세안 청소년교류	청소년협의회	한-아세안간 청소년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한-아세안 연대를 위한 학술협력	한국 동남아학회	학술대회 등을 통한 한-아세안 학자교류	
		아세안 박사후과정 펠로우십	한국과학재단	아세안선진과학자들의 국내연구기관 연구	
		한-아세안 국제 대학 학생교환	대전대학교	한-아세안 대학생 교환 사업	
2004 (18건)	7	〈학술교류〉	한-아세안 학술교류	한국 동남아학회	한-아세안 미래에 대한 연구지원 및 학술대회
		〈보건〉	아세안 노인 홈케어 1차년도	한국 노인복지회	한국형 노인 홈케어 사업연수를 통한 아세안 모델 개발지원
		〈인적교류〉	아세안 문화리더십 교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아세안 공예전문가 교환 방문
		〈한아세안 대화관계수 립 15주년 특별사업〉	기념우표 발간	외교부	한-아세안 관계 15주년 기념우표 발간
			한류스타 순회	외교부	한-아세안 관계 15주년 기념 한류스타 2개국 순회
		〈동아시아 공동체 사업〉	2차 동아시아공 동체 포럼	말레이시아 외교부	아세안+3의 정부, 재계, 학계, 전문가간 논의
			아세안 예술가교환 펠로우십	문화부, 한국문화예술 진흥원	한-아세안 문화예술인 상호방문 및 세미나

출처: 외교통상부 (2004, 123-125에서 재구성).

* 공무원 교류사업은 제외함.

2. 한-아세안 문화협력 및 교류 사업

지난 17년간 시행된 한-아세안 관련 사업에서 넓은 의미의 사회 문화교류가 아니라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교류에 해당하는 것은 8건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2003년도 이전에는 1999년도에 정례화된 유네스코 사업 2건이 전부인 상황이다(표 8) 참조). 그러나 2003년 AMCA+3가 가동되고 한국이 아세안 관계 15주년 기념을 통해 행사를 준비하면서 한-아세안 문화교류 사업은 증가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문화부문 교류가 중요해지면서 예술인 교류사업의 시행기관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문광부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바뀌었으며, 새로이 영화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교류 사업의 기초가 정치·경제·안보 협력을 보조하는 것에서 문화산업 자체를 위한 협력을 지향하는 것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표 8〉 한-아세안 문화예술교류사업, 1999-2005년

사업명	시작(제안)년도 /시행횟수	연간예산 (미화)	시행기관	제안측
예술경영 워크숍*	1999/ 5회	79,000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필리핀 문화센터	한국
한-아세안 문화인 교류사업*	1999/ 5회 (2004년 종료)	120,000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15주년 기념 한류스타 아세안 순회행사	2004/ 1회	400,000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한국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15주년 기념 심포니 오케스트라	2005/ 1회	244,120	국립극장	아세안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15주년 기념 민속놀이기구 전시회	2005/ 1회	39,974	외교통상부	아세안
한-아세안 예술인 교환 펠로우십 사업	2005/ 시행예정	167,417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한국
한-아세안 시네마 사업	2004/ 검토중	N/A	영화진흥위원회	아세안

출처: 외교통상부의 2005년도 아세안 협력사업 및 예산 목록에서 재구성.

* 2003년 이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업은 외교통상부의 한-아세안 협력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요약하면, 한국과 아세안의 공식관계는 1989년에 시작되나, 사회문화교류 사업은 199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시작되고 관계수립 15주년을 앞둔 2003년부터 갑자기 증가한다. 이러한 최근의 변화는 문화예술분야와 문화산업 부문의 사업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세안에 문화예술장관회의(AMCA)가 설치되고 여기서도 아세안+3 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추세는 아세안뿐 아니라 다른 기구나 단체를 통한 동남아와의 문화교류도 더욱 증가할 것을 추측케 한다. 이에 현시점은 동남아 문화교류의 방향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래에서는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기 전에 일본의 대아세안 문화협력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3. 일-아세안 문화협력의 특징과 시사점

일본은 1977년에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개설하였으며, 1978년 아세안문화기금(ACF)을 제정하고 아세안의 문화정보위원회(COCI)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였다. 일본의 대 아세안 기금은 일-아세안 종합교류기금(JAGEF: Japan-ASEAN General Exchange Fund), 일-아세안 학술교류기금(JAEP: Japan-ASEAN Exchange Programme), 일-아세안 연대기금(JASF: Japan-ASEAN Solidarity Fund)으로 구분된다. 사업의 주 내용은 경제개발과 기술발전, 인적 자본 개발, 아세안 기구강화 및 내부 네트워크 형성이다. 문화 교류 및 협력 사업의 내용으로는 청소년 교류만이 아세안 기금으로 시행되는데, 다른 사업 분야에는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이나 기타 다른 기금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아세안 문화협력 정책은 오랜 역사와 풍부한 자원에 기

반하며, 일본의 소개나 홍보보다는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가 원칙으로 고수되고 있다. 청소년 교류사업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세 가지 기금 사업에는 2001년도부터 일-아세안 고교생 교환 프로그램이 포함된다.⁶⁾ 청소년 사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학간 교류나 문화예술분야보다 더욱 더 장기적인 안목과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아세안 관련 기금이 말아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장단기로 구분되는데 단기 프로그램은 양 지역의 학생들이 서로의 지역에서 한 달 가량 홈스테이를 하거나, 동남아 학생들만 50일간 일본에 머무는 것으로 구성된다. 장기 프로그램은 동남아 학생들만 일본에서 1년을 머무는 것이다. 여기서는 단기 프로그램도 1달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일본보다 동남아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점이 주목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 한-아세안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은 2004년도에 시작되었는데, 보다 많은 수를 대상으로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 또한 동남아 학생은 한국만 10일간 방문하고, 한국 학생은 동남아 3개국을 13일간 방문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국 학생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구도이다. 또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활동내용은 현지 생활을 통한 체험과 학습이 아니라 행사와 방문 위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청소년 교류는 미래지향적 문화교류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언어 습득이나 문화에 대한 감수성 형성 및 개인 관계망 형성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며, 향후 학술, 사업, 기타 영역에서 아세안 교류를 매개할 다양한 인적 자원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도 청소년 시기에 한 달 이상 머무르면서 서로의 지역 언어와 역사, 문화에 대해 진지한 관심과 학습동기를

6) 일본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jp와 아세안-일본 센터 홈페이지 www.ascan.or.jp 참조.

형성할 수 있는 중장기 교류 프로그램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표 9〉 일-아세안 기금 (2002년 현재)

일-아세안 종합교류 기금 (JAGEF)	설립경위	1999년 일-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당시 오부치 일본 총리가 지원 표명
	설립목적	아세안 신규가맹국 기능강화/ 아세아 사무국 기능강화 아세안 경제협력 촉진/ 아세안에 대한 기술이전 및 투자 촉진 아세안과의 무역 및 인적교류
	규모	1억 6,953만 2천 엔
	사업내용	외교관 연수, 아세안 사무국 홈페이지 개량,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 관련, 신규가맹국 IT 지원 등 아세안 내부운영 지원과 기업운영 및 운송, 기술 등 다양한 분야 지원 아세안 고교생 장기교류 프로그램 포함
일-아세안 학술교류 기금 (JAEP)	설립경위	1987년 일-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당시 다케시타 총리가 지원 표명
	설립목적	일본 내 민간의 아세안 이해 촉진/ 아세안 지역연구/ 아세안 연구협력
	규모	4,198만 2천 엔
	사업내용	아세안 청년의 날 회의, 기후통계 최신화 사업과 과학기술분야의 관민 협력, 산림협력 회의, 일-아세안 지적 대화 등을 지원. 일-아세안 고교생 단기교류 프로그램 포함
일-아세안 연대기금 (JASF)	설립경위	1997년 아세안 30주년을 맞아 아세안 기금이 설립되자, 1998 년 당시 오부치 외상이 기금 각출의사 표명
	설립목적	아세안의 인재개발과 빈곤사각, 지역 프로젝트 발굴 등으로 개발을 촉진
	규모	2,000만 달러
	사업내용	아세안 기금과 별도로 회계 관리되며, 일-아세안 고교생 교류 프로그램 포함

출처: 외교통상부의 일본의 아세안 관계 정리 문건에서 재구성

1970년대 말 이후 대외 문화교류와 관련된 일본의 정책적 입장은 일본에 대한 이해의 심화와 함께 국제관계에서 우의와 선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과의 문화교류는 일방적으로 일본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 문화를 일본에 소개함으로써 상호이해를 위한 실질적 기반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78, Section 4).

아시아 경제위기 직후 선포된 1998년의 “일-아세안 다국적 문화 미션을 위한 행동 아젠다”에서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 동남아 국가와의 문화 협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고 있다.⁷⁾ 여기서는 외교문서에서는 보기 드물게 문화인류학적 문화개념을 채택하여 “문화는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 인간이 배우고 만들어가는 모든 생활과 의미유형, 지식체계를 포괄한다”고 정의한다. 또한 “문화와 경제가 분리된 두 영역이 아니며” “문화의 지속 없이는 경제와 사회의 지속도 의문시 된다”고 언급한다. 사업의 실행에서는 비정부기구의 역할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아세안의 발전과 관련된 문화사업에는 일-아세안 문화 백과사전을 제작하고 일-아세안 문화 정보 네트워크를 수립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안은 구체적이고 상호이해의 원칙을 고수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간접적으로 일본이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는 제안이기에 주목된다.

반면 한국의 대 아세안 문화협력 사업은 여러 가지로 한계를 보인다. 이는 일본에 비해 역사가 짧고 자금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한국의 ‘문화외교’ 방침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21세기 들어 한국 정부는 문화외교의 중요성을 여러 통로를 통해 강조하지만 그 근거는 국가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공식화하고 있다(외교통상부 2005, 130). 앞서 아세안과의 문화협력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화교류의 내용은 공연단체 파견, 한국학 지원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문화교류 기반 확대” 보다는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외교”에 치중하고 있다. 한국 문화외교의 방향은 앞

7) ASEAN-Japan Multinational Cultural Mission's Action Agenda (<http://202.232.190.90/foreign/980511cultural.html>)

으로 대안적 가치를 담도록 재조정되어야 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문화외교 방식을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지 상호이해의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V. 맺는 말

이 글은 아세안 문화협력의 역사와 특징,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대 아세안 문화협력 상황을 살펴보고, 일본의 사례를 통해 향후 한국의 대아세안 문화협력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아세안의 사회문화 교류 및 협력 사업은 '아세안 방식'의 특징이 가장 잘 구현되고 있는 영역이다. 문화협력 사업은 성원국가의 참여가 고르게 보장되는 영역이며, 각종 대회나 행사를 돌아가며 개최하고 따라서 번갈아 주빈의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대화와 합의의 정신을 실천한다. 아세안의 사회문화 교류 및 협력의 일차 목표는 정부나 관련부서의 문제에 그치는 정치·경제·안보 차원의 협력과 이해를 시민 대중 수준의 협력과 이해로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한 여러 대회와 행사, 기타 조직을 통해 아세안의 문화 예술, 정보 및 미디어 분야의 활동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학생들의 교류는 증가하였으나, 몇몇 사업은 일회성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문화예술 관련 전시나 순회공연은 일회성의 효과로 그칠 가능성이 크며, 공무원이나 학생 중심의 인적 교류 역시 개인 경험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대중매체를 통한 교류와 협력의 효과는 상당하며 가시적이다. 아세안 교육 매체의 제작이나 방송, 영화제 등은 시민 대중에게 아세안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는 중요한 기제이다. 최근 아세안

COCI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회문화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는데, AMRI와 AMCA 회의 내용이 보여주듯이 이러한 전환에는 장단점이 교차한다. 이는 일본과 한국 등을 통한 외부 기술과 정보 지원이 사회문화 교류 및 협력 사업에서도 중요해짐을 의미하며, 이 분야에서도 경제적 성격의 프로젝트가 도입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향후 사회문화 교류 및 협력사업은 앞서 언급한 아세안 조직의 특징이 구현되는 분야로서의 입지를 잃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전환은 아세안의 조직이 외부 세력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 아세안과 COCI의 역사에서도 확인되듯이 아세안의 조직화와 문화협력 및 정보교류 사업의 가동은 일본의 경제적 지배가 무르익던 1970년대 말 일본 자금으로 인해 가능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대 아세안 사회문화협력 지원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자국과의 갈등을 무마하고 일본의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나아가 일본은 아세안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아세안에 대한 일본의 지식과 접촉, 경험을 풍부히 하는 간접적 이익을 얻었다.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아세안의 사회문화교류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따로 또 같이 참여하는 활동들이 제도화되고 있다. 2003년에 시작된 문화예술장관회의(AMCA)에는 한중일 삼국이 처음부터 함께 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정보관련장관회의(AMRI)에도 한중일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아시아 전체에서 아세안의 입지가 강화된 점을 반영하며, 아세안의 활동은 더 폭넓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보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진행될 경우 중복과 형식화, 부실화의 위험도 앓고 있다. 즉 다양한 역사문화 유산 속에서 하나의 아세안을 구축하기 위한 아세안 정체성 형성과 이해증진이라는 목적에 맞는 활동이 위축되거나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급변하는 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한국의 대 아세안 문화협력 사

업은 이제 막 시작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과 비교할 때, 막강한 자금력에 기반하고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을 따라가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치와 역할이 일본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일본 따라잡기가 아세안 문화협력의 모델이 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본의 경험을 염두에 두고 오늘날 세계화 추세 및 산업구조의 변화방향을 고려하면서 한국의 대 아세안 문화협력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자금 지원 시 아세안의 자율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대 아세안 사업 기금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아세안 측 관계자들이 제기하는 불평 중 하나는 자금 사용에 대한 한국 측의 간섭이다. 이 때 조건 없는 일본의 기금 제공이 흔히 비교준거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기금 사용에 대한 통제는 구체적인 형식적 절차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을만한 사업 파트너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적절한 사업 파트너를 신중하게 선택한다. 이 점은 기금 사용에서 불거져 나올 수 있는 문제와 오해를 줄이는 첩경이다. 아직 아세안과의 사회문화 교류 및 협력사업이 초기단계이므로 적절한 상대 파트너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을 계획하고 적합한 상대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은 초기 비용과 실수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한국 측의 사업은 사전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셋째, 한국을 알리는 것만큼 아세안을 배우는 데도 치중한다. 한국 측에서 기금을 대는 대부분의 아세안 사업은 아세안에게 한국을 알리고 한국을 배우라고 내세우는 경향이 강하다. 사회문화 교류 및 협력 사업만큼은 한국이 아세안을 배우고 이해하는 내용으로 중심으로, 최소한 상호 이해와 배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세안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경은 한국 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 것과 직결된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중시하는 문화다양성은 바로 아세안과 같은 이웃과 편안히 교류할 수 있는 문화적 이해력과 감수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아세안을 배우는 것은 한국의 국제화 및 문화적 자질 함양에 아주 중요하다.

다섯째, 한국 내 아세안 국민이나 아세안 내 한국교포를 최대한 배려, 고려, 활용한다. 한국 내 아세안인이거나 아세안내 한국인은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사회문화 교류 및 협력을 매개할 수 있는 집단이다. 한국 내 이주자 집단과 동남아내 교포 집단에 대한 활동 및 프로그램을 고려함으로써 아시아 문화교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아세안 교류는 비공식적이고 다양한 사회부문의 교류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 상황에서 사회문화교류의 주체와 영역은 급속히 다 변화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정부는 대 아세안 문화교류사업 내용에 대해 균형감각을 키우고 입지를 넓히며 실질적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찬. 2005. 『메이드 인 아세안: 아세안의 부상과 한국호의 표류』, 서울: 새로운 사람들.
- 변창구. 2004. “동남아시아 지역통합전략으로서의 아세안 방식: 유용성과 한계.” 『대한정치학회보』 12(2): 407-430.
- 배금찬. 2003. “아세안+3 협력과 동아시아 정체성.” 『동남아시아연구』 13 (1): 279-312.

신윤환. 2004.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탈동북아중심주의적 관점." 한국동남
아연구소 월례발표회 (2004년 5월 29일) 발표문.

외교통상부. 2004. 『아세안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2005. 『외교백서』 서울: 외교통상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국제기구를 통한 문화협력사업 활성화 방
안』.

『문화일보』. 2005년 4월 12일.

Acharya, Amitav. 2001. *Constructing a Security Community in Southeast Asia: ASEAN and the Problem of Regional Order*. London: Routledge.

ASEAN. 1987. *ASEAN: The First 20 Years*. Singapore: ASEAN Secretariat.

Ganesan, N. 2004. "And the Twain Shall Meet: A Review Essay." The China-ASEAN Project, Review Paper. Center of Asian Studies, The University of Hong Kong.

www.hku.hk/cas/cap/programmes/Review%20GANESAN.PDF

Haacke, Ugen. 2003. *ASEAN's Diplomatic and Security Culture: Origins, Development and Prospects*. New York: Routledg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 1978. *Diplomatic Bluebook for 1978*. Jap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Narine, Shaun. 2002. *Explaining ASEAN: Regionalism in Southeast Asia*. London: Lynne Rienner Pub.

Thomas, Nick. 2002. "From ASEAN to an East Asian Community?: The Role of Functional Co-operation." *SEARC(Southeast Asian Research Centre) Working Papers Series 28*: 1-32. Hong Kong: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인터넷 사이트 및 자료집〉

아세안(ASEAN) 홈페이지 www.aseansec.org

아세안 문화정보위원회(COCI) 홈페이지 www.aseansec.org/99.htm

청와대 홈페이지 www.president.go.kr

한국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go.kr

일본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go.jp

아세안-일본 센터 홈페이지 www.asean.or.jp

ABSTRACT

A Study on the Search for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Korea

Kim Minjung

Lecturer,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hile the Korean government has expanded and deepened its relations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since the 1990's,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between the two have also accelerated. This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the change in the environment which has taken place in terms of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s history of cultural cooperation can be broken down into three periods: (1) The launching of the COCI (Committee on Culture and Information) in 1978 and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for this body's activities and basic projects; (2) the onset of the AMRI (ASEAN Ministers Responsible for Information) in 1989 and expansion of exchanges in the field of mass media and (3) the beginning of AMCA (ASEAN Ministers of Culture and Arts) in 2003 and the growing number of socio-cultural exchanges carried out as part of the preparations for "ASEAN Vision 2020".

While Korea's relations with ASEAN began in earnest in 1989, the number of socio-cultural projects involving the two parties have slowly increased since the middle of the 1990's. Exchanges, especially in the arts and cultural industries, have been rapidly expanding since 2003, which marked the 15th anniversary of Korea's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ASEAN. This recent upsurge in activity, which also closely related to the onset of AMCA and of the ASEAN+3 (ASEAN + Korea, China, and Japan) system, highlights the growing importance of cultural diplomacy in terms of regional cooperation.

Unlike Japan, Korea's policy direction appears to be weakened by critical limitations. As far back as 1978, Japan made it clear in its diplomatic bluebook that the introduction of developing countries' cultures in Japan represented an essential element when it came to developing a better mutual understanding with such nations through cultural exchanges. In the aftermath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8, Japan also began to emphasize the fact that without cultural sustainability, economic and even social sustainability itself could be called into question. However, in various public papers, Korea has continued to advance the notion that cultural diplomacy is in fact the basis of economic development.

As a result, Korea's cultural cooperation with ASEAN has placed more emphasis on the 'promotion of national images' than on the 'expansion of the basis for cultural exchanges.' The time has come for Korea to move its cultural diplomacy beyond the simple pursuit of economic interests, and to begin to search for ways to differentiate its cultural cooperation with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Key Words: Southeast Asia, ASEAN, ASEAN Way, Cultural Cooperation, Cultural Exchange, Cultural Diplomacy